

오른쪽 날개 '설기현 vs 이청용', 왼쪽 '이영표 vs 김동진'

# 허정무號 해외파 '생존 경쟁'

김남일도 김정우·기성용·조원희와 '주전 경쟁' 돌입

축구대표팀의 생존 경쟁이 더 독해졌다. 해외파 선수라면 무조건 주전이라는 관행도 이번만큼은 무의미해졌다. 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호주와 평가전(9월 5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을 앞두고 '해외파 재점검' 차원에서 외국 무대에서 뛰는 선수 10명을 호출했다. 그동안 5~6명의 해외파 선수를 불러들였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선택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태극마크와 거리를 뒀던 '진공청소기' 김남일(고베)과 '스나이퍼' 설기현(폴란드)이 1년여 만에 대표팀에 합류하는 기쁨을 맛봤다. 허정무 감독이 이들 '올드 보이'를 선택한 이유는 A매치 일정을 놓고 축구협회와 프로연맹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면서 어쩔 수 없이 뽑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대비해 해외파 선수들의 정확한 몸 상태를 이번 기회에 점검하겠다는 이유가 더 크다. 허 감독 역시 "대표팀의 세대교체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나이가 든 선수들의 경험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밝히

면서 국내파와 해외파의 주전 경쟁을 유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파 선수들도 주전 경쟁에서 이겨야만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표팀 훈련 분위기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가장 눈에 띄는 경쟁이 예상되는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다. 허 감독은 그동안 김정우(성남)-기성용(서울)을 주로 기용하고 조원희(위건)를 백업의 형태로 내세웠지만 이번에 김남일을 가세시켰다. 김남일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진공청소기'라는 별명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대명사로 불리며 펍 베어백 감독 시절은 물론 허정무 감독 취임 초기인 지난해 9월까지 주장 완장을 썼다. 하지만 김남일은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을 끝으로 대표팀을 떠났고, 그 이후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면서 마음고생을 했다. 김남일은 지난달 31일 귀국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강한 의욕을 다졌

지만 최근 J-리그 경기 도중 코뼈를 다치면서 쉽지 않은 경쟁을 펼치게 됐다. 더불어 '프리미어리그 동창생'인 설기현과 이청용(볼턴)의 오른쪽 날개 싸움도 흥미진진해졌다. 설기현은 대표팀 부동의 측면 공격수로 활약했지만 지난해 6월 북한과 월드컵 3차 예선에 참가하고 나서 1년 2개월 동안 발탁되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알 힐랄로 임대되면서 코칭스태프의 시야에서 벗어났던 게 가장 큰 이유다. 설기현의 공백은 '젊은 피' 이청용의 몫으로 돌아갔고, 대표팀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로 재탄생한 이청용은 기성용과 더불어 대표팀 세대교체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기현 역시 "허정무 감독은 열심히 뛰는 선수를 좋아한다. 예전과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물론 이청용이 잘해주고 있지만 예전에 좋았던 경기력을 생각하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대표팀 잔류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밖에 수비 라인에서는 이영표(알 힐랄)와 김동진(제니트)이 주전 윙백 자리를 놓고 해외파끼리 경쟁을 펼치려 한다. 기회를

연합뉴스

## "A매치 앞두고 누가 리그 경기 하는가"

박지성·이영표·박주영 등 해외파 '반쪽 훈련' 비판

박지성·이영표·박주영 등 해외파 축구 국가대표들이 연일 K-리그 선수를 없이 해외파만 먼저 모여 '반쪽 훈련'을 하게 된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가대표팀 주장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지난달 31일 입국 인터뷰에서 "다음주는 A매치 기간인데 누가 리그 경기를 하는 지 의심스럽다"면서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행정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과 호주 대표팀이 다음 달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평가전을 치르기로 확정된 만큼 다음 날 6일 열린 K-리그 경기 일정도 연이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아직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지성은 또 해외파와 국내파의 소집 날짜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수비수 이영표(32·알 힐랄)는 1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도착하고 나서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10명의 해외파 선수만 먼저 모여 훈련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며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이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파 선수들의 소속팀도 국제축구연맹(FIFA)의 대표팀 차출 규정(경기 전 48시간)을 몰라서 먼저 보내준 게 절대 아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비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성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 먼저 도착한 박주영(AS모나코)도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연맹의 '대표 차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랐다. 박주영은 "K-리그와 대표팀 모두 중요할 수 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대표팀은 A매치 두 경기씩 치른다. 한 경기만을 치러도 준비하기가 빠듯하다"고 말했다. 박주영은 이어 "많은 선수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야한다. 선수들을 힘들지 않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3~4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점프장에서 열리는 '2009 평창 FIS스키점프 대륙컵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1일 연습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13개국에서 모두 200여명의 선수 및 임원 등이 참가. K-98(HS 109m)과 K-125(HS 140m)로 나뉜 경기가 치러진다. /연합뉴스

## 남부대 女핸드볼 은메달

추계대회 결승, 한국체대에 패

남부대가 2009 추계 전국대학핸드볼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남부대는 1일 강원도 홍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대부 결승에서 한국체대를 맞아 공·수에서 잦은 실책을 범해 27-30으로 저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로써 남부대는 지난 3월 연맹회장기 준우승에 이어 올 2개 대회에서 아쉽게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2006년 창단한 남부대핸드볼팀은 지난해 4월 중부선수권대회에서 전국대회 첫 우승을 했다. /서승원기자 swseo@

## '2018 평창동계올림픽'

14일 유치위 창립총회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삼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이 마침내 뜻을 올린다. 평창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7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는 당일 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공동 유치위원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며 사무총장으로는 장재룡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내정됐다.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선 10월15일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KOC 명의의 유치의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IOC는 내년 6월말 공식 후보도시 3~4곳을 선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 페더러 US오픈 1회전 통과

개인 통산 16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리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가 US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상대한 첫 결승을 내다봤다. 페더러는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단식 1회전에서 18살의 신인 데빈 브리턴(1370위·미국)을 3-0(6-1 6-3 7-5)으로 가볍게 꺾고 64강에 올랐다. 페더러는 1세트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게임스코어 3-0으로 앞서나가며 기선을 제압한 뒤 내내 압도적인 공격을 펼치며 88분 만에 경기를 끝냈다. 페더러는 시몬 그로일(65위·독일)과 32강 진출을 다룬다. /연합뉴스



2일수) ▲2009 프로야구(LG : 히어로즈)(18 : 10·KBS n스포츠·Xports) <KIA : 삼성>(18 : 15·SBS스포츠) <한화 : 두산>(18 : 15·MBC ESPN)

## 이태리 식탁, 좌탁, 책상 전문관 오픈(신상점)

중남유럽 이태리가구 작수업 100% MADE IN ITALY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역 1동 1001호 (신상점) 02-539-7100 / 02-539-7101 / 02-539-7102 / 02-539-7103 / 02-539-7104 / 02-539-7105 / 02-539-7106 / 02-539-7107 / 02-539-7108 / 02-539-7109 / 02-539-7110 / 02-539-7111 / 02-539-7112 / 02-539-7113 / 02-539-7114 / 02-539-7115 / 02-539-7116 / 02-539-7117 / 02-539-7118 / 02-539-7119 / 02-539-7120 / 02-539-7121 / 02-539-7122 / 02-539-7123 / 02-539-7124 / 02-539-7125 / 02-539-7126 / 02-539-7127 / 02-539-7128 / 02-539-7129 / 02-539-7130 / 02-539-7131 / 02-539-7132 / 02-539-7133 / 02-539-7134 / 02-539-7135 / 02-539-7136 / 02-539-7137 / 02-539-7138 / 02-539-7139 / 02-539-7140 / 02-539-7141 / 02-539-7142 / 02-539-7143 / 02-539-7144 / 02-539-7145 / 02-539-7146 / 02-539-7147 / 02-539-7148 / 02-539-7149 / 02-539-7150 / 02-539-7151 / 02-539-7152 / 02-539-7153 / 02-539-7154 / 02-539-7155 / 02-539-7156 / 02-539-7157 / 02-539-7158 / 02-539-7159 / 02-539-7160 / 02-539-7161 / 02-539-7162 / 02-539-7163 / 02-539-7164 / 02-539-7165 / 02-539-7166 / 02-539-7167 / 02-539-7168 / 02-539-7169 / 02-539-7170 / 02-539-7171 / 02-539-7172 / 02-539-7173 / 02-539-7174 / 02-539-7175 / 02-539-7176 / 02-539-7177 / 02-539-7178 / 02-539-7179 / 02-539-7180 / 02-539-7181 / 02-539-7182 / 02-539-7183 / 02-539-7184 / 02-539-7185 / 02-539-7186 / 02-539-7187 / 02-539-7188 / 02-539-7189 / 02-539-7190 / 02-539-7191 / 02-539-7192 / 02-539-7193 / 02-539-7194 / 02-539-7195 / 02-539-7196 / 02-539-7197 / 02-539-7198 / 02-539-7199 / 02-539-7200

한복스튜디오/천공금 전문 리모델링 사업부 10월 오픈(호남점)

### 국제프리미엄백화점 아이엘리시아

www.aeliasia.com

02-671-1199